

지역 소식 통

고창군, 인천공항행 시외 버스 하루 5회 운행 확대

고창군이 인천공항행 시외버스의 운행 횟수를 기존 하루 2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행 버스는 지난 3월 10일부터 고창에서 출발해 하루 2차례씩 운영돼 왔다. 이번 증편에는 기존 금호고속 외에도 전북고속, 호남고속, 대한고속 등 전북 지역 3개 운수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운행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번 증회 노선 중 고창 기준 1시 20분과 3시 55분에 출발하는 차량은 기존 우등형 버스보다 고급화된 프리미엄 버스가 도입됐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창군민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하절기인 7월에는 전월 대비 약 10% 증가한 250여 명이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편된 인천공항행 시외버스의 운라인 및 현장 예약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되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자봉센터, 부안노인 복지센터와 협약 체결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흥기)와 부안노인복지센터(센터장 오미애)는 최근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및 행복을 전하는 이동세탁방 '보송이' 운영 협업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흥기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미애 센터장도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면 더 따뜻한 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나들목공원, 새로운 힐링공간 주목

고창군, 황토길 준공식 열어...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 조성 완료

고창군 나들목공원에 맨발 황토길, 어린이 생태놀이터, 유아숲체험원이 각각 들어서면서 새로운 힐링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나들목공원 광장에서 나들목공원 황토길 준공식을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만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김만기,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 지역주민 100여명이 함께했다.

나들목공원 황토길은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습식 황토길 70m, 건식 황토길 547m 등 총 617m 구간의 맨발 황토길이 만들어졌다. 화장실, 신발장, 먼지털이 일체형 세족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황토길에도 시설을 보완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객 편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어린이 생태놀이터는 총사업비 5



억원을 들여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 체험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키울 수 있도록 각종 놀이시설과 휴게공간을 갖추었다. 자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요소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신체 활동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숲체험원'은 총사업비 6억 원을 들여, 교육생 25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숲체험 교육을 운영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관내 유아들이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경험하며 신체 발달과 창의적 정서를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황토길과 생태놀이터,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통해 고창나들목공원이 휴식·체험·교육이 아우러진 복합 힐링공간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능력 국제적 인정받아

4년 연속 '국제 공인 안전성 검증'

정읍시가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4년 연속 세계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산하 식품환경연구구형(FERA)이 주관한 2025년 식품분야 국제속연도 평가(FAPAS)에 참가해 모든 항목에서 '만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는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과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이 참가해 잔류농약과 수질 등 10여 개 분

야의 분석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받는 공신력 있는 국제 대회다.

이번 평가에는 66개 분석기관이 참여했다. 토마토 퓨레에 함유된 10개 농약 성분을 분석해 모두 Z-score ±2 이하를 기록했다. Z-score는 분석 실험실 간 오차를 평가하는 지표로, ±2 이하면 '만족', ±2~3은 '의심', ±3을 초과하면 '불만족'으로 판정된다.

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분석의 정밀성과 신뢰도를 다시 한 번 국제적으로 입증했으며, 이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체계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성과로 평

가받고 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 안전분석실은 출하 전 생산단계 농산물 600건을 분석해, 안전성 확보는 물론 출하시기 조정과 농약안전사용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농산물 안전 분석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출하 7일 전 시료(1~3kg)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제2청사 내 농기센터 분석실에 신청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국제속연도 평가를 통해 정읍의 분석 능력이 세계적으로 검증됐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 정읍시 단속 강화

정읍시가 전기차 보급 확산에 발맞춰 충전구역 불법 주차차 등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상반기 중 21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중 절반 이상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발생 시,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신고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일방차량이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구역 또는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10만원) △지정된 충전지대(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충전방해 행위로 접수된 신고는 총 217건으로, 이 가운데 118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이를 통해 충전시설 불법 점유를 줄이고, 전기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76건의 과태료 부과 사례 중 다수가 내연기관 차량의 불법 주차차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시는 내연기관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충전문화 개선과 더불어 전기차 보급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따뜻한 예우를 실천하고 있다.

‘나라 위한 헌신에 보답’

정읍시, 국가유공자 26가구 주거환경 개선

정읍시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따뜻한 예우를 실천하고 있다.

시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낡고 불편한 주택 내부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유공자 가정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고령 유공자와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된 신청 접수에는 총 108명이 참여했다.

시는 연령,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가구 유형,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26가구를 선정했다. 이 가

운데 14가구는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12가구도 오는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업 완료 대상자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개선된 주거 여건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6.25 참전유공자인 강태원(91)씨는 "어린 시절 나라를 위해 싸운 보람을 이렇게 늦게나마 느끼게 돼 정말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공무직노조, 단체교섭 상견례 개최

부안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부안군지부는 지난 1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권로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공무직노조 단체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이번 상견례는 공무직노조가 요구하는 안건에 대한 실무교섭에 앞서 상호 단체교섭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교섭위원 소개, 대표교섭위원 인사, 추진경과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무직노조에서 제출한 요구안은 조합활동 보장, 노동조건 개선, 인사제도 개선, 교육훈련, 조합원 복지 등 조합원의 권익과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의제가 담겨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은 군정발전의 주춧돌이자 대들보와 같다"며 "소통이 멈추면 교통이 시작됨을 잊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측 관계자는 "이번 요구안은 평소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 것"이라며 "직원복지 향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부안군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으로 부안군과 공무직노조는 교섭 요구안에 대해 수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최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